

시론



김선기 문학평론가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장

이 가을 삶의 심표 하나 짚자

인간관계는 고립무원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늘,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지 말라는 건 곧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답답할 뿐이다.

하지만 어쩌랴. 오늘의 현실을 속명으로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잖은가. 이럴수록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때다.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래서 목적지에 남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야 아닐 것이다. 일찍 도착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잖나 싶다. 잘못 달린 방향이면 그만큼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주말엔 일상을 훌훌 털고 시골로 가는 완행버스에 오르면 어떨까.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그곳이 외가대이든, 죽마고우 집이든, 아니면 유년 시절 꿈을 물었던 초등학교 교정도 좋다. 일단, 도시의 빌딩 숲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힐링 아니겠는가.

시골로의 여행은 폭넓은 인문학적 사유와 삶에서 느끼지 못한 뜻밖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고목이 늘어서 있는 오래된 옛길과 동네 고샅, 갈대가 우거진 강과 작은 냇가, 그리고 주변에 펼쳐진 풍요로운 황금 들녘은 그야말로 매력적인 풍경들이겠다. 거기에 정 많은 아낙네가 차려주는 시골밥상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청량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여행은 미지의 세계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힐링의 요소를 갖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여행이 주는 치유의 힘을 얻는 건 아니다. 일체유심조라 하지 않았던가. 모든 건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단 것이다. 온갖 스트레스와 고민거리를 풀지 않고 다시 싸 들고 온다면, 여행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심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 또 심표를 찍어야 할 때 마침표를 찍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심

표와 마침표를 구분해서 제대로 찍을 줄 안다는 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다.혹시, 반쯤없이 묻혀 있는 마침표의 단단함에 이끌려 후회를 만든 적은 없는지, 소용돌이치는 심표의 꼬리에 휘말려 또 다른 후회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이 계절에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누구나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미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반드시 심표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달리려면, 먼저 숨을 고르고 한 발 물러나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풍경이 있는 이 계절,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심표를 하나씩 찍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시집 한 권 손에 들고 시골 들판을 가로지르는 완행버스를 타보자. 석양을 받아 더욱 풍요로운 가을이 그들맞을 것이다. 사는 게 뭐 별것임을 느낄 것이다.

社說

성금 다가온 워드코로나 완벽하게 준비해야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워드(with) 코로나'를 시작한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9개월, 정확히 651일 만이다. 모든 국민이 목숨을 고통을 감내하며 대전에 다다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부스타트(추가적),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등 단계적 대응 계획을 마련 중으로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신 효과인자 코로나19는 뚜렷한 안정제다. 광주·전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에 그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한 풀 꺾이는 모습이다. 워드 코로나 시대, 고강도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각종 모임과 회식 등이 활발해지면서 운영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연말로 이어지면서 소비 확대도 예상된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1단계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은 10명까지며,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를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에선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일상회복은 확진자 급증 시엔 일시 중단한다. 이에 이상반응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미접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마지막 단계 기준을 완료를 85%로 잡고 있다. 어렵게 만든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변이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핵심 방역인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 준수는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각에서는 워드 코로나 이후 유행 등 해외 사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진 및 사망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했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길,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날개 단 기름값, 물가 관리에 비상등 켜졌다

광주·전남지역 휘발유 가격이 7년만에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0월 셋째주(10.18-22) 4당 휘발유 평균은 광주 1천715.04원, 전남 1천720.34원으로 전주(광주 1천674.67원·전남 1천678.72원) 대비 40원 넘게 뛰었다. 유류세 인하 종료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급등했던 지난 2009년 2월 첫째주(80원)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현재 내달 중순부터 15%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는 4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2008년에 10%, 2018년-2019년 15%, 7%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당분간 상승 여력이 높아 문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0달러 오른 배럴당 83.2달러를 나타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2.6달러 오른 배럴당 98.0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9달러 오른 97.7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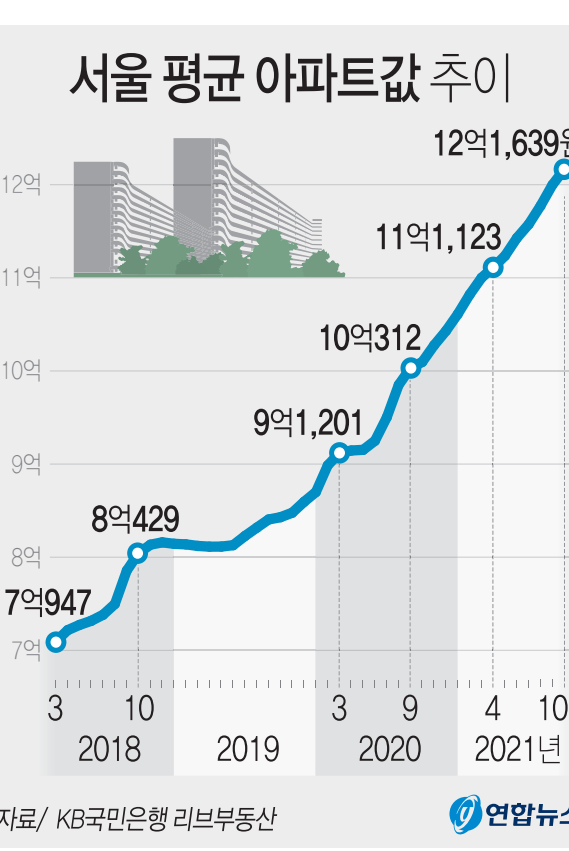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고용시장 개선 지속, 모건스탠리의 내년 전망 상황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름값은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다. 가족이나 소비자물가가 고배 풀린 상황에서 우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에 주유소 가격이 뛰면 난방비 부담이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것이다. 특히 원유는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여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유류세 인자가 즉각적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최근 물가 오름세를 이끄는 것은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이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목표치 2%를 이미 달성했다고 한다. 2012년 2.2%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며, 4분에는 3%를 찍을 가능성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2%대를 지킬만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소비상 국민이다. 선제적인 조치를 내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래픽 뉴스

1년만에 2억원 ↑...서울 평균 아파트값 12억 돌파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2억원을 넘어섰다. 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천639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앞서 작년 9월 10억원(10억312만원)을 넘은 데 이어 7개월 만인 올해 4월(11억1천123만원) 11억원을 돌파했는데 이후 6개월 만에 1억원이 더 오른 것이다. 작년 12월(10억4천299만원) 대비 10개월 만에 1억7천340만원이 올랐고, 작년 10월(10억971만원)과 비교해서는 1년 만에 2억668만원 상승한 수치다. 한강 이북인 강북권 14개구의 평균 아파트값(9억7천255만원)은 9억7천만원을 넘어섰고, 한강 이남 강남권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14억4천865만원)은 14억5천만원에 다가섰다.



박원길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에서는 초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지만, 30대들이 몰린 중저가 아파트값도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은 서민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시장이 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기고



장석 광신대학교수

근대 중국인들의 꿈과 시진핑의 꿈

다 좀 더 나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인들의 꿈인 구국 강병의 길을 간절히 찾고 있던 지식인과 청년들에게 소련의 10월 공산주의 대혁명(1917년)의 성공 소식이 전해졌고, 또 한국의 3·1 운동의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일어나서 낡은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북경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5·4 신문화운동(1919년)을 일으켜 중국의 낡은 사상(유교)을 거부하고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시도했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13명이 1921년 7월23일에 중국 공산당을 조직했다. 무신론을 신봉한 공산당은 1922년 제1차 전국 대표자대회에서 '비기독교 운동'을 결의했고, 1925년 제3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반기독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기독교는 중국을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에, 중국의 급진적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와 결부된 기독교를 거부하는 비기독교 운동(1922-1927년)을 일으키게 됐다.

1927년 4월12일 장제스가 국민당 내 공산당원들을 체포, 투옥, 처형하므로 공산당원들은 살 길을 찾아 농촌과 산간 오지로 도망했다. 생존을 위한 고난의 대장정(1934년 10월-1935년 10월, 1만2천500km) 속 에 사회주의 혁명이 중국에서 성공할 비밀이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농민 출신인 홍군들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공산당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공유지와 지주, 그리고 부농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또 항일투쟁(1937년 7월-1945년 8월)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일제와 싸운다는 대의명분도 쟁겼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싸우는 공산당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됐다. 결국 농민들의 지지를 얻은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 중국을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농촌 출신의 마오쩌둥의 지도력이다.

1935년 대장정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 마오쩌둥의 지도력은 군사적, 정치적, 논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탁월해 홍군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홍군은 마오쩌둥의 가르침을 따라 농민들의 마음을 얻는 역할을 잘 수행해 국민당과 내전(1945-1949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게 된 것이다.

물론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시대의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선동해 인민의 인격과 생명을 말살하는 과오가 인정됐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 일을 부정하고서는 존립할 수 없었고, 마오쩌둥도 그의 공로가 7이고, 과오가 3이라고 평가해 천안문에 그

의 사진을 지금까지 걸어 놓게 했다.

1976년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이 죽은 후, 문화혁명이 끝나고, 덩샤오핑이 등장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1978년) 정책을 실행한 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집권까지, 약 40년 동안 중국 경제는 매년 9.59% 정도의 성장을 했고, 현재 G2로 미국과 경쟁하는 강대국이 됐다.

이제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나라를 한나라처럼 강성하게 하고, 중국문화를 당나라처럼 흥왕하게 하는 '꿈'을 꾸고 있다.

시진핑은 이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시했다. 이 일대일로에 관련국(138 개국)과 경제벨트를 형성해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나는 남중국해를 거쳐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데 남사군도 문제로 충돌한 필리핀과 연결된 미국이고, -一路는 종교문제가 민감한 이슬람 국가들이 있다.

일로(一路)에 존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이슬람권에 중국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도록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하였고, 중국 교회의 십자가 철거, 목회자를 구속,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를 중국 특색의 종교가 되도록 하는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인성 이 큰 행위다.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시진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시진핑 행위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이경훈·영양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독자투고

스토킹 처벌법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과 그의 동생, 어머니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은 전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다. 피해 여성을 향한 스톱킹이 시작되었다. 이는 곧 사회 각계의 스톱킹 범죄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마침내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안은 스톱킹 행위를 상대방의 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발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스톱킹 범죄 발생은 2017년 43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 등 지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톱킹 신고는 2018년 2천772건에서 2019년 5천486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톱킹 범죄는 '개인 간의 사적인 일'로 치부돼 처벌이 미약했다. 스톱킹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처벌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달 21일부터는 스톱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흥미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톱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찰·검찰·법원이 스톱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스톱킹 행위 신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100m 이내 접근금지 통보를 하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톱킹 범죄자의 구치소 유치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경찰은 스톱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위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범죄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적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 전 스톱킹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 워치 지급, 임시 속속 제공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스토킹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인성이 큰 행위다.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시진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시진핑 행위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이경훈·영양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